

## 연말 가요 시상식, 폐지 아닌 모두의 축제로

3사 방송국 및 케이블 방송국의 연말 가요 시상식에 대한 비평

과천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박선혜

2006년 겨울에도 어김없이 주요 3사 방송국뿐 아니라 케이블 방송국에  
서까지 가요대상 시상식이 기획되었다. 연예대상, 연기대상과 같은 다른  
시상식과는 다르게 가요대상은 특히 10대들에게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보다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가요대상  
은 다음날 학교에서 화젯거리로 삼아 이야기를 나누기에 꽤나 흥미 있는  
대상이다.

특히, 좋아하는 가수를 가진 10대들의 경우 가요대상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다. 보통 2주 전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투표에 목숨을 걸고, 온라인  
상에서 만난 팬들끼리 ‘오토클릭’과 같은 편법을 공유하여 투표율을 올린  
다. 뿐만 아니라 시상식 당일에는 지방에서 올라오기 위해 차를 대절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 풍선을 가진 팬들끼리 뭉쳐 다른 팬클럽과 싸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공연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인기상’을  
노리고 한 건에 몇 백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문자를 수십 건씩 보내

‘오빠들’에게 트로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한다.

10대들의 이런 치열한 전쟁과도 같은 시상식 해프닝이 끝나면, 주요 상은 이른바 아이돌 스타들에게 모두 돌아가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연말에 반짝하고 지나가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공정한 기준을 내세운, 대한민국 가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공식적 프로그램인 만큼 분명 개선이 필요한 것이 확실하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연말 가요 시상식의 폐해를 비판하며 이들의 폐지를 요구한 일은 3년 전부터 계속되었다. 충분히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폐지를 결정할 오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말 가요 시상식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은 대중을 상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예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수들의 상업적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상의 범위를 너무 작게 세분화시켜 수많은 상이 거의 모든 가수들에게 돌아가다 보니 상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져 가수들조차 시상식 참가를 거부하는 마당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6년 11월, 케이블 대표 가요채널인 M.net과 KM TV 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의 온라인 투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사실이 드러나 네티즌들의 비난은 끊이질 않았다. 가요 시상식의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는 2006년에 절정에 다다른 듯했다. 그리하여 결국 MBC가 먼저 연말 가요 시상식의 폐지를 결정하고 나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보였지만 이런 움직임도 잠시, 결국 언제 그랬냐는 듯 2006년 11월 25일 M.net & KM 뮤직비디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3사 방송국에서는 전부 각각의 가요 시상식을 치렀고, 시상식 폐지를 결정했던 MBC는 그

형식을 바꿨다고는 하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한 행태를 비판하던 열기는 2007년 한 해가 열리면서 또 다시 잠잠해졌다. 2007년 겨울 다시 불거질 연말 가요 시상식에 대한 문제점 개선은 상반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부터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수상기준과 점수 공개를 통한 바람직한 시상식을 위해

2006년 연말 가요 시상식은 3사가 거의 같은 모습이었다. 2004년 데뷔 이래 큰 인기를 누렸던 아이돌 스타 동방신기가 3사의 상을 거의 휩쓸었고, 각 시상식의 신인상 역시 13인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가 전부 차지했다. 이들이 1년간 많은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도대체 수상기준은 무엇일까.

각 방송사에서는 분명히 채점기준을 밝히고 있다. 각 방송사마다 그 비율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음반판매량, 각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 차트 순위, 방송 기여도, 네티즌 인기투표, 심사위원단 점수를 포함하고 있다. 네티즌 인기투표와 음반판매량 영역은 아무리 10대 팬들의 영향으로 편중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정확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으니 공정성의 면에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도대체 심사위원단 점수와 방송 기여도 점수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 안에서의 기준은 또 무엇인지, 시청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매년 대상 수상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와 반발을 잠재우고 시상식에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채점기준을 보다 정확히 밝히고, 점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상식을 위해

가요는 10대들의 전유물이 아니지만, 가요 시상식은 젊은 층의 전유물이다. 비록 다양한 가수들이 공연한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 보아도 얼마나 무대의 스케일이 다른지 알 수 있다. 톱스타들에게는 언제나 화려하고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두세 개의 무대로 나누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다른 가수들은 보통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한두 곡 정도를 부르는 무대가 전부다.

기성세대와 함께한다는 명목으로 순서상에는 성인가요 무대가 꼭 끼어 있고, 트로트상도 주어지긴 하지만 그다지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명목상’의 무대일 뿐이다. 진정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특별무대라고 불리며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서로의 노래를 하거나 함께 다른 가수의 노래를 하는 식의 무대가 많아져야 한다. 시상식에 참가하는 가수들은 모두 1년 동안 각 가요 프로그램에서 수도 없이 자신들의 노래를 불렀다. 굳이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까지 그 노래를 또 다시 불러야 할 필요는 없다. 1년 치 가요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아닌, 치밀한 기획하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상식을 만들어야 한다.

## 겉치레가 아닌 효율적인 시상식을 위해

현재 각 방송사의 가요 시상식을 살펴보면 밤부터 자정을 넘어선 새벽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된다. 1, 2부로 나누어지는 것은 기본이고, 최근의 시상식은 3부까지도 나누어진다. 많은 가수들의 좋은 무대가 그만큼 많다면 4부가 되건 5부가 되건 무방하겠지만, 프로그램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시상할 상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상을 시작으로 힙합 부문상, R&B 부문상, 댄스 부문상 등 장르별로 각각 상이 있고, 남녀 그룹상과 솔로상이 또 세분화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신인상 역시 남녀 그룹, 솔로로 나누어져 있고, 공로상에다가 네티즌 인기상, 모바일 인기상, 해외 인기상까지 엄청난 양의 상이 수상된다. 마지막에 다함께 무대에 올라올 때 보면 결국 모두의 손에 트로피 하나씩 들려 있는 셈이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모두가 함께 수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이다 보니 상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다. 수상되는 상의 개수를 줄이고, 대신 공정성을 더욱 기할 필요가 있다.

### 부정한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상식을 위해

가요 시상식 역시 대중문화의 연장이고 상업주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알게 모르게 거대 기획사의 입김이 수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상한 연예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결국 수상을 많이 한 가수들의 기획사는 대부분 거대 기획사다. 물론 큰 기획사의 아래에 있는 가수들이 좀 더 무대나 방송의 기회가 잦고, 음반 판매 홍보 또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분명 가수들 중에는 기획사가 소규모거나 혹은 기획사 없이 혼자서 힘들게 좋은 음악을 하는 팀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내어 그 노력을 칭찬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해주는 의미의 시상이 있다면, 가요계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주의, 한국사회 특유의 1등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연말 가요

시상식을 아예 폐지해버리기에는 그 본연의 의미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음악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1년 동안 고생해온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함께 어울리는 일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훈훈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폐지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해의 하반기에도 작년과 같은, 연말 시상식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이곳저곳에서 제기될 것이다. 각 방송사의 시상식이 올 겨울에도 곳곳하게 버터준다면 과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개선된 모습으로 등장해서 2007년 겨울 이후 더 이상 연말 가요 시상식 폐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